

불자 세상보기

대리모와 생명 그리고 인권

나라 전체가 경제문제로 떠들썩하다. 자고 일어나면 부도 회사가 줄을 잇고, 불법대출 사건으로 문을 닫는 신용금고들이 속출하는 등 경제사정이 말이 아니다. 또 전기세, 수도세와 같은 공공요금 이 해부터 인상되는 등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저축도 중요하지만 이런 때일 수록 현명한 소비, 즉 바른 씀씀이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 사정이 활성화되면 무턱대고 허리띠만 졸라매는 것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바른 씀씀이인지 경전 말씀에서 들어본다.



바른 씀씀이

나눌 줄 알아야 현명한 부자

■소욕(少欲)은 최상의 쾌락, 만족은 최상의 부귀다. <천칭문경> 부처님이 사뭇의 기원정사에 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파세나디왕이 부처님을 찾아왔는데 물고기가 많이 아니었다.

“대왕이여, 어디서 오는데 먼지를 뒤집어쓰고 피로한 모습입니까?” “부처님, 이 나라의 유명한 부자였던 마하나가가 며칠 전 목숨을 마쳤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어 재산 모두를 국고에 넣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 일을 하느라고 먼지를 뒤집어 썼더니 행색이 이렇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로 큰 부자였습니까?” “그는 창고에 백천억의 순금을 쌓아둔 부자였습니다. 그는 재산을 모으기 위해 평생 싸라기밥과 짙은 시래기죽을 먹으며 거칠고 남루한 배운만을 입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재산을 모은 부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을 모으기만 했지 쓸 줄을 몰랐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불쌍한 사람이 찾아오면 문을 닫고 식사를 했습니다. 부모와 처자권속에게까지 인색했으며 수행자를 위해 보시하는 일은 더욱 없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구두쇠였습니다.” 왕의 얘기를 전해 들은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결코 훌륭한 재산가가 아니요. 그는 자기의 재물을 널리 써서 큰 이익을 얻을 줄 모르는 바보였요.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넓은 들안에 물을 가득 가두어 두었으나 그 물을 마시거나 목욕을 하지 않으면 말라서 사라지는 것과 같소. 그는 재산이 있으면서도 복을 짓지 못하고 말았소. 그러나 왕이여, 재산을 모아 먼저 부모를 공양하고 처자권속을 돌보며 가난한 이웃과 친구들에게 나누어줄 줄 아는 사람은 현명한 부자라 할 것이요. 이는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마을 부근에 연못을 만들고 나무를 심어 사람들이 찾아와 쉬게 해주는 것과 같소. 그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것이며, 그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날 것이요. 돈은 이렇게 쓰려고 아끼고 모으는 것이요.” <집이화경>

■한 장자가 있었는데 그 집은 매우 부유해서 재물이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었다. 다짐중에 부자(父子)가 서로 의지해 재산을 상속해 끌어잡이 없었고 거기다가 모든 선행을 다했으므로 명성이 멀리까지 전해졌다. 이 장자는 지닌 재산을 넷으로 나누어, 그 한 부분의 재산으로는 항상 이자를 늘려 가업을 풍족하게 했고, 한 부분의 재산으로는 일용에 필요한 물건을 공급했고, 한 부분의 재산으로는 고아와 의지할 데 없는 노인에게 주어 내세의 복을 닦았고, 한 부분의 재산으로는 친척과 오가는 나그네를 구제하였다. 이같이 넷으로 나누어 벌이는 일이 끌어잡이 없었으니 부자가 이 어가면서 대대로 그것을 이었다. <심지관경>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해 제기된 대리모 문제는 이제 공론의 장으로 나와야 할 사회문제의 하나이다.

불임 부부들에게 마지막 대안의 하나로 은밀히 시행되어 온 대리모에 의한 임신과 출산은, 정자와 난자를 체외의 시험관에서 수정시킨 다음 이 수정란을 제3의 여성(대리모)의 자궁 내에 의학적 방법을 통해 착상시켜 임신시키는 방법이다. 이후의 과정은 대리모의 입장에서 통상적 임신 및 출산의 과정과 같다.

현대적 맥락에서의 대리모는 정자 제공자와 접촉없이 임신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과거의 씨받이와는 차이가 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대리모는 현실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진다. 과거에는 주로 친인척들이 대리모로 나왔으나, 2~3년 전부터는 중국동포들이 대리모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 대리모에 비해 사례비(1~2천만원 정도)가 적게 들 뿐 아니라, 친권 및 상속권 분쟁의

금전 대가 대리모 출산 생명과학 윤리법 '금지'

가능성이 적고 익명성이 확실해 보장된다는 점이 중국동포의 상대적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전을 대가로 한 대리모 출산과 정자·난자 거래를 금지하는 정부의 '생명과학 보건안전윤리법' 시안이 최근 발표되면서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더욱 심각한 함의를 띠고 있다.

우선 불임 부부들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금전적 대가가 개입되지 않는 대리모에 대해서는 긍정화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시간대로 금전을 대가로 한 대리모 출산 등이 금지되면 1백여만쌍으로

추산되는 불임부부들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불임부부들을 겨냥한 고가의 암시장이 형성되거나, 이들이 외국으로 나가 이러한 대안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이다.

결국 대리모 문제는 생명의 탄생을 둘러싼 윤리적 문제들과 개인적·가족적 차원의 정서적·현실적 필요성, 자본주의적 시장메카니즘과 착취 및 인권침해의 우려, 가족제도를 둘러싼 기존 사회적 장치들의 정당성과 그 보호의 필요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 탄생하는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의식과 제도들이 만나는 곳에 있는 복합적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와 대비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은 몇 가지 기본적인 전제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바탕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불임부부들의 욕구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입양제 사회적 공감대 가족의 의미 확대 필요

그들이 현실적으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또 활성화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를 최대한 막아야 할 것이다. 이 대안에는 물론 입양이 포함된다.

또한 가족의 현대적 의미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가족을 혈연관계에 한정하는 관행이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우리의 의식과 제도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대리모 문제가 시장적 거래의 관계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마치 존재하지 않는 듯이 시각지대에 내몰아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대리모들에 대한 착취와



김병관 아주대 교수 사회학

인권유린의 사례들을 만들어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 대리모를 통해 출생하는 새 생명의 인권을 확실하게 존중·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호적의 문제에서부터 국적의 문제, 기양아의 문제, 상속권이나 양육권의 문제, 분생시의 문제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리모 문제가 많은 면에서 우리사회의 기존 제도나 의식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수록 이 문제는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제도적으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 궁극적 이유는 인간의 생명 및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생태사찰 가꾸기 나서자”

사찰 생태문화 포럼

사찰을 생태문화의 장으로, 생명력이 충만한 지비의 장으로 가꾸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포럼이 열렸다. 조계종 사회부와 중앙신도회, 맑고항기쁨게모임, 인드라마생명공동체, 불교신문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사찰생태문화 포럼이 14일 서울 길상사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사찰생태문화기행의 경험과 과제'를 주제로 환경운동을 펼쳐 온 8개 단체들이 참석해 프로그램 및 사례를 공개하면서 단체인 노동공동체 연결, 산림가꾸기, 방생문화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대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은 발제문 요약이다.

“환경단체 연대 강화”

○...각 단체가 가진 사찰환경운동 경험을 교류하고 사찰과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불자들이 생태사찰 가꾸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식물생태 및 각종 생태계에 대한 조사 및 교육프로그램과 사찰주변 정화활동, 사찰 답사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 생태계 체험프로그램 등이 연대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

불교단체와 사찰, 신도회의 연대활동을 통해 올바른 방생법회를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생태문화답사 및 생태문화 강화를 개설하며 대 정부 및 종단에 대한 환경정책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한정갑(조계종중앙신도회 문화부장)

“새로운 방생문화 시급”

○...사찰과 단체의 특성에 맞게 방생에 대한 불자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행사가 필요하다. 방생문화에 대한 연구발표나 강연, 교양대학 강

좌, 법문 등으로 바람직한 인간·생태 방생을 유도해야 한다. 또 기존의 방생방법 형식을 바꿔 사찰생태문화 기행을 실시하거나 우리 꽃·나무 심기, 자연체험학교 또는 생태학교 개설 등을 추진해도 좋을 것이다.

특히 불자들이 사찰에 오고 가면서 쓰레기 하나라도 내가 먼저 들고 들꽃 하나라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방생의 실천임을 몸으로 보여줘야 한다.

김지영(맑고항기쁨게모임 기획실장)

“불자 환경교육 실시”

○...환경문제는 개개인의 생활양식의 변화 없이는 해결될 수 없기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환경문제를 자각케 하는 환경교육이 필요하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내면적으로 조명해 보는 정토회의 '깨달음의 장'과 '나눔의 장' 등 수련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예다.

이밖에 지역활동가들과의 연계교육을 통한 환경지도자(실무자) 워크숍, 생태적 삶의 현장을 찾아 떠나는 선재기행 등도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대

상으로 생태문제를 체계화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생태교육프로그램 참가자들을 조직화하는 이점도 있다.

박석준(불교환경교육원 기획부장)

“현장교육위주 전환”

○...자연 사랑은 생태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시민을 위한 환경운동은 이론위주에서 현장교육위주의 생태기행으로 전환돼야 한다.

생태기행은 21세기의 대안 시민교육이자, 시장논리에 좌우되는 생태관광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생태기행은 붉은 띠 동여매지 않고 시민환경운동을 해나갈 수 있는 '시민(지지)기반'있는 시민운동을 가능케 한다.

김재일(두레생태기행 회장)

“생협운동 폭넓게 전개”

사찰 생활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봉사자 자신의 가정이 친환경적으로 변하고, 이것을 주변인들에게 전파하는



14일 서울 길상사에서 조계종 사회부와 불교단체들이 공동주최한 '사찰생태문화포럼' 장면.

역할을 해야 한다.

진정한 생명운동은 친환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도시 소비자들이 농민들과의 노동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생태운동을 실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작물을 사고 파는 정도를 넘어, 일꾼들을 만들어 내고 조합원을 조직하고 교육하는 일이 시급하다.

인드라마생명공동체가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조직 및 대중교육, 생산, 가공, 유통, 배분 등 모든 분야의 노하우가 사찰 생명운동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형선(생명공동체 부장)

“사찰마다 야생화 심자”

○...통도사 서운암에는 주지 성파

스님이 가꾼 야생화가 지천으로 널려 있다. 2005년까지 서운암 일대 20만 평을 100여종의 야생화 군락지로 만들겠다는 원력아래 매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야생화를 옮겨 심고 있다.

이같은 일은 대도시에서 사는 신도들이 들꽃화를 결성해 한달에 한 번씩 사찰을 찾아 들꽃을 심고 가꾸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야생화 심기는 신도들에게 풀 한 포기 소중함을 가르쳐 자연과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계기가 된다. 서운암처럼 야생화 꽃밭에서 전국시조시인대회, 야외생태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포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김소영(서운암 들꽃회 간사)

○...통도사 서운암에는 주지 성파



소장하면 소장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책

◆ 한국의 불화를 집대성하기 위해 전국의 사찰 및 국공립박물관, 대학박물관, 사립박물관 등 국내외에 산재한 불화를 직접 조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11개 본말사 564개 사찰, 박물관 7개소, 1,621점, 3,674컷 수록)

◆ 원색도판을 풍부하게 실어 원화를 직접 대하는 느낌이 들도록 하였으며, 각 불화에 대한 해설과 함께 畵記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 이 불화집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부처님의 자비심이 피어나고, 민족문화에 대한 새로운 자긍심이 싹트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 석경 큰스님 -

◆ 한국불화의 전체적인 모습을 처음으로 집대성한 이 불화집의 간행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사적인 측면에서도 큰 의의를 지닙니다. - 조신일보 -

原畵 그대로의 화려함이 살아 있습니다



- 판형: 가로 257 x 348mm (타로로이드판형)
○ 면수: 각권 250쪽 내외 (원색화보, 해설, 논문, 화기 수록)
○ 장정: 전면 컬러 양장제본
○ 발행처: 성보문화재연구원
○ 가격: 각권 90,000원

韓國의 佛畵

불교출판 사상 최대의 불사, 두 번 다시 하기 힘든 한국불화의 집대성

헤를 거듭할수록 훼손으로 인해 친견하기 어려워지는 각종 불화들!

우리의 성보인 이 불화(佛畵)들은 장엄한 불국도의 화현이요

신심의 결정체이며, 불보살님의 원만한 상호에서 우러나오는 복덕의 광명은

우리의 어둠을 없애주고 간절한 바람을 성취시켜 줍니다.

사단법인 성보문화재연구원에서는 10년의 조사와 촬영 끝에

『한국의 불화』 1차분 20권을 완간하였습니다.

아울러 완간을 기념하여 2개월 동안 특별 할인판매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디 이 기회에 불화집을 구입하시어 불보살님과 함께하시는

인연을 맺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보문화재연구원 이사장 범 하 함장

구입문의 / 성보문화재연구원 ☎ (02) 587-6612, 팩스 (02) 586-9078

5년 전의 약속, 1차분 20권 마침내 완간!



『한국의 불화』 1차분 간행목록(1996년~2000년)

- 제1권 통도사 본사 편(상) 제11권 화엄사 본말사 편
제2권 통도사 본사 편(중) 제12권 선암사 편
제3권 통도사 본말사 편(하) 제13권 금산사 본말사 편
제4권 해인사 본말사 편(상) 제14권 선운사 본말사 편
제5권 해인사 본말사 편(하) 제15권 마곡사 본말사 편(상)
제6권 송광사 본말사 편(상) 제16권 마곡사 본말사 편(하)
제7권 송광사 본말사 편(하) 제17권 범주사 본말사 편
제8권 직지사 본말사 편(상) 제18권 대학 박물관 편(Ⅰ)
제9권 직지사 본말사 편(하) 제19권 대학 박물관 편(Ⅱ)
제10권 월정사 본말사 편 제20권 사립 박물관 편

『한국의 불화』 원간 기념 특별가 200집 한정보급

기간: 2000년 11월 2일~12월 31일

보급가: 1백만원(20권 1집, 현금결제에 한함)